

크고 센 놈들의 향연... 팰리세이드·쏘울 주목

'눈길 끄는 내년 신차' 각축장 LA 모터쇼 30일 개막

현대차 북미시장 겨냥 '팰리세이드' 공개
기아차 신형 '쏘울' 소비자에 첫 선
벤츠 최고급 브랜드 '마이바흐 GLS' 출시

LA 오토쇼는 오는 30일(현지시간) 미국 LA 컨벤션센터에서 개막, 다음달 9일까지 펼쳐지는 올해 마지막 모터쇼로, 전 세계 40여개 완성차업체의 60종 이상의 신차가 첫 선을 보이는 전시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팰리세이드·쏘울, 주목할 국내 신차들=우선, 현대차가 처음 선보이는 '팰리세이드(PALISADE)'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플래그십(대표) 대형 SUV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현대차는 '신차 효과'를 앞세워 내년도 미국에서의 실적 부진을 만회한다는 구상이다.

'팰리세이드'는 싼타페 윙급의 대형 SUV(7-8인승)로, 운전석부터 3열 승객석까지 고객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과 패키지, 안전·편의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편의성 측면에서 소외됐던 3열 승객까지 고려한 넓이, 디자인과 신기술을 대거 적용했다. 디자인은 부산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카 'HDC-2 그랜드마스터'의 외형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아차의 신형 '쏘울'도 LA 오토쇼에서 처음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인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전량 생산하는 준중형 박스카 쏘울은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6.2%인 10만9625대가 미국에서 팔린 인기 모델이다.

기아차는 LA오토쇼를 앞두고 외관 이미지에 이어 측면 실루엣과 실내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입차도 SUV 등 신모델 선보여=메르세데스-벤츠는 최고급 브랜드 마이바흐의 첫 대형 SUV인 '마이바흐 GLS'를 공개한다.

3세대 GLS를 기반으로 하며 지난 4월 베이징 모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카 '비전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얼티메이트 럭셔리'의 디자인이 일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BMW는 SUV 라인업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X7'을 선보인다.



기아차가 최근 공개한 신형 쏘울의 실내 티저 이미지. 신형 쏘울은 LA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다.

X7은 3열 시트를 갖춘 7인승 모델로 차체 길이 5151mm, 전폭 2000mm, 높이 1805mm의 실내공간을 갖췄다.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 2종(40i, 50i)과 디젤 2종(30d, M50d)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M 퍼포먼스 모델인 M50d는 최고출력 400마력, 최대토크 77.5kg·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렉서스는 대형 SUV LX의 한정판 모델인 'LX 인스퍼레이션'을 선보인다.

북미 전략형 대형 SUV인 LX 570을 기반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욱 살렸으며 500대 한정판으로 판매된다. 링컨은 지난 3월 뉴욕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형태로 선보였던 대형 SUV '에비에이터'의 양산형 모델을 내놓는다.

지프는 중형 SUV 랭글러의 픽업모델을 최초로 공개하고 아우디는 R8 부분 변경형(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전기 콘셉트카 'E-트론 GT 4도어'를 공개한다.

도요타는 프리우스의 부분변경 모델과 완전변경(풀체인지)을 거친 코롤라-코롤라 하이브리드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연합뉴스



현대차가 공개하는 대형 SUV 팰리세이드는 지난 6월 부산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카 'HDC-2 그랜드마스터'의 외형을 이어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비전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얼티메이트 럭셔리'.

자동차보험료 3%대 오른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빅4' 다음달 인상 가시화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빅4'인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이 일제히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공식화했다.

인상 폭은 3% 수준으로 이르며 다음달 말부터 인상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1위 삼성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 1.2% 인상을 위한 요율 검증을 의뢰했다.

손보사들이 지난 6월 인상 공표된 국토부의 적정 정비요율 체계에 따라 정비업체들과 맺은 재계약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삼성화재는 5000개 정비업체 중 등급이 확정된 1500개와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500개와의 재계약을 모두 마치면 보험료 3~4%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전체 업체의 3분의 1과 정비요율 인상

재계약이 발효된 만큼 보험료도 인상요인의 3분의 1을 우선 반영해 1.2%를 올리겠다는 의도다.

삼성화재는 이와 별도로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급등에 따른 순보험료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약 2%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요율 검증을 이번주 보험개발원에 또 의뢰할 방침이다.

시장점유율 2위 현대해상과 3위 DB손해보험도 보험개발원에 요율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현대해상·DB손보 모두 '3%대 인상률'로 검증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KB손해보험은 일단 정비업체 재계약만 반영한 1%의 인상을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이 의뢰한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보험료 인상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마세라티 SUV '르반떼 GTS' 출시

V8 엔진 장착...제로백 4.2초 불과

엔진소리로 작곡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으르렁거리는 배기음이 매력적인 차. 자동차 마니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고성능 럭셔리카. 이탈리아 카 브랜드 마세라티가 26일 '럭셔리 슈퍼 SUV'를 내놓았다.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출시한 SUV 모델인 '르반떼(Levante-지중해의 바람)'에 플래그십(대표) 세단 콰트로포르테 GTS의 막강한 V8 엔진을 장착한 르반떼 GTS로, 국내에서도 바람을 일으킬 태세다.

르반떼 GTS는 라인업 중 최상위 고성능 모델로 3.8 l 최고출력 550마력, 최대토크 74.7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SUV임에도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2초에 불과하고 최고속도도 292km/h에 이른다.

르반떼 최초로 '통합 차체 컨트롤'을 도입, 차체 움직임이 불안정하면 즉시 엔진 토크를 낮추고 각 바퀴에 필요한 제동력을 분배하는 기능도 갖췄다.

디자인 면에서는 기존 모델의 전·후면 범퍼를 변경해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고 실내를 최상급 피에노 피오레(Pieno Fiore) 가죽으로 마감 처리된 스포츠 시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풀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는 바이-제논(Bi-Xenon) 라이트와 비교해 20% 높은 시인성과 25% 낮은 발열, 2배 이상 늘어난 수명을 제공하는 게 마세라티 설명이다.



이탈리안 럭셔리카 마세라티가 국내에 출시한 르반떼 GTS. (마세라티 제공)

FMK 마세라티 총괄 고재용 상무는 "브랜드 최초 SUV 르반떼가 마세라티 역사상 가장 막강한 엔진을 만나 완벽한 고성능 럭셔리 슈퍼 SUV로 탄생했다"며 "디자인, 고급스러움, 고성능 퍼포먼스까지 3가지 요소를 구현해 국내 럭셔리 SUV 세그먼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